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4년 제99호  
2024.03.28.(목)

##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미국】** 美, 인텔(Intel)에 반도체법 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 지원

**【중국】** 中, 高수준 외자유치 확대 행동방안 발표...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EU】** EU, 中 레거시 반도체 의존도 조사 검토...美의 對中 견제 동참 주목

### 주요 산업별 이슈

**【전기차】** 美 바이든 행정부,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배기가스 규제 촉진

**【물류】** 금년 美 서해안 항구 병목현상 심화 예상

**【광물】** 中 구리 제련 업체, 생산능력 확장 억제에 합의

### 주간 이슈 포커스

**【미·중, 반도체】** 中, 자국 정부기관에서 인텔·AMD 퇴출...美·中 간 반도체 규제 심화 구도

### 원자재 뉴스 PLUS

**【이차전지】** 아르헨, 하천 고갈 우려로 신규 리튬 채굴 허가 발급 중단

##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한국무역협회, 우리 기업이 주목할 만한 2024년 글로벌 기술 트렌드 전망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 미국

## 美, 인텔(Intel)에 반도체법 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 지원

- 🕒 3.20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차 반도체 보조금 지원 기업\*으로 인텔(Intel)을 선정하고, 최대 85억 달러(약 11조 원)의 직접 보조금과 110억 달러(약 15조 원)의 대출 계획을 발표
  - \* (1차) 美 BAE시스템스, 3,500만 달러 / (2차) 美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1억 6,200만 달러 / (3차) 美 글로벌파운드리스, 15억 달러
- » 인텔은 동 보조금을 통해 향후 5년간 미국 내 1,000억 달러 이상 투자로 18A(1.8nm) 공정 및 고급 패키징 개발 등 첨단반도체 생산 확대에 기여 전망
- 🕒 美 정부는 '30년까지 세계 첨단 반도체의 2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인텔의 투자를 계획의 핵심으로 지목
  - \* 투자 효과로 제조업 일자리 10,000개 포함 약 30,000개 이상 고임금 일자리 창출 기대
- » 르몬도 美 상무장관은 “금번 투자로 촉발된 혁신은 美 기술 및 연구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제조 역량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
- » 블룸버그는 향후 인텔 경쟁사인 TSMC, 삼성전자 등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대상 선정 발표가 수주 내 예상된다고 전망

출처: 美 상무부 보도자료('24.03.20), 블룸버그('24.03.20)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중국

## 中, 고수준 외자유치 확대 행동방안 발표...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 🕒 3.19일(현지시간) 中 국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수준 대외개방 추진 및 외자유치 확대 행동방안' 24개 조항을 발표하고,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경영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
  - » 동 방안은 5개 분야, 24개 조치로 구성됐으며 ▲외자 진입 규제 완화, ▲내외자 동일 원칙 하, 정책 지원 강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해외 기업이 입국 편리화, ▲경제무역 규칙 수준 제고 등이 골자
- 🕒 中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및 국내외 경제 회복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고수준 개방을 실현한다는 방침
- » '23년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6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6%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국가 통계국이 통계 포털에 의례적으로 연간 수치만 기재

출처: 中 국무부 보도자료('24.03.19)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U

EU, 中 레거시 반도체 의존도 조사 검토...美的 對中 견제 동참 주목

- 🕒 3.18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EU는 국가 안보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험 파악의 일환으로 **역내 中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
  - \* 세계 레거시 반도체 시장 中 점유율: ('23년) 29%, ('24년) 40%(예측) [자료원: IBS]
  - » EU의 반도체 산업 네트워크 조사에서 美 바이든 행정부의 中 레거시 반도체를 대상으로 하는 BIS 조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
  - » 내달 벨기에에서 美·EU 간 무역기술위원회(TTC) 의제로 공급망 위험 식별 및 中 반도체 지원 정보 공유 협력 연장 추진 등 對中 견제 관련 현안이 논의될 예정
- 🕒 블룸버그는 “EU의 금번 조사 개시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니셔티브를 반영했다며, 자체 제한 조치나 美와의 **공동 조치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
  - » 다만, 일각에서는 美·EU를 중심으로 한 中 반도체 산업 제재는 中 정부·기업의 반도체 국산화, 첨단 공정 활로 모색을 부추긴다는 우려 존재

출처: 블룸버그('24.03.18),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22호('24.03.19)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전기차

美 바이든 행정부,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배기가스 규제' 추진

- 🕒 3.16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美 환경보호청(EPA)은 전기차 판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승용차 및 경량 트럭의 배기가스 규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 美 환경보호청(EPA)의 자동차 배기가스 최종안은 '32년까지 승용차 및 경량 트럭의 전기차 비중(67%)은 유지하되, 연도별 탄소 배출 감소 의무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
  - » 동 규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대응책' 일환으로 ▲전기차 도입 촉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석유 수입 감축, ▲파리기후협정 이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 파리기후협정: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소
- 🕒 주요 자동차 업계는 EPA 초안에 제시된 목표 관련 충전 인프라 확충, 전기차 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권 축소 가능성 등을 지적하였으며, **배기가스 환경 규제에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
  - » 한편, 로이터통신은 에너지부가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해 내연기관 연비 계산 시 기존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석유환산연비(PEF·Petroleum Equivalent Fuel) 계산법\***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 보도
  - \* 일부 업계 문제 제기예 따라, '27년 도입 대신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

출처: 블룸버그('24.03.16), 로이터통신('24.03.18)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물류

물류 업계, 금년 美 서해안 항구 병목현상 심화 예상

- 📍 3.11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24년 美 항구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팬데믹 기간보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 ▶▶ 물류 소프트웨어사 하임백 회장은 물동량 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물동량\*이 전년 대비 15~20% 상승하여 美 항구에 극심한 병목현상으로 공급망 혼란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우려
  - \* 美 수입 물동량 변동 추이: 약 200만 TEU ('20.7) → 227만 TEU ('24.1)
  - ▶▶ 현재 美 물류 업계는 ▲팬데믹 이후 신규 선박의 증가, ▲파나마 운하 가뭄으로 인한 서해안 항구 수요 증가, ▲경제 성장세 회복 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 📍 美 바이든 행정부는 항구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를 위해 '22년 해상선적개혁법\*을 제정했지만, 현 법안의 한계로 인한 보완 필요성 제기
  -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해운업 담합 행위에 따른 물가 상승 제한을 위해 발의
  - ▶▶ 팬데믹 기간 병목현상은 단기적 수입 급증에 따른 컨테이너 부족에서 기인했던 반면, '24년에는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증가가 원인이며, 항구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 필요

출처: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21호('24.03.14)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광물

中 구리 제련 업체, 생산능력 확장 속도 조절

- 📍 3.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13일 베이징 중국유색금속공업협회 주최 회의에서 19개 中 구리 제련 업체가 생산능력 확장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도
  - ▶▶ 중국 內 동재 생산량이 2년째 2,200만 톤을 상회\*하는 가운데, 中 정부 관계자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강화 의사를 밝힘
  - \* 중국 內 동재 생산량: ('20년) 2,046만 톤 / ('21년) 2,124만 톤 / ('22년) 2,287만 톤 / ('23년) 2,217만 톤 [자료원: 중국 국기통계국, 해관총세]
- 📍 탄소중립 전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구리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中 정부는 단기적 수급 및 가격 상황을 고려해 주요 기업들의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장에 신중
  - ▶▶ 다만 런던금속거래소(LME)의 3월 3주차 동 재고량은 110,205톤으로 전주대비 0.9% 소폭 증가하며, 7주 연속 감소세를 마감

출처: AP통신('24.03.14)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미·중, 반도체 中, 자국 정부기관에서 인텔·AMD 퇴출...美·中 간 반도체 규제 심화 구도

- 🕒 3.24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는 '23.12.26일 자국 정부기관에서 美 인텔·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PC·서버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보도
- ▶ 동 가이드라인은 '24년부터 적용되었으며, 항급 이상 단위의 정부기관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서와 운영체제(OS)\* 구매 의무 부여
- \* 화웨이, 파이티움 등 모두 자국산으로 구성된 총 18개의 프로세서·OS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최근 중국 내부에서 외국산 반도체가 탑재된 기존 제품을 모두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한편, 美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美 상무부의 수출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中 화웨이가 7nm 반도체를 개발한 것과 관련, 협력업체 제재를 검토하는 등 對中 제재 확대 전망

美·中 반도체 관련 규제 현황

중 국	
美 제품 정부기관 퇴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中 국가·군사 부문 기술 자립화를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인 Xinchuang(信创) 전략</li> <li>▶ (목표) '27년까지 자국 공급업체 기술 전환 완료</li> <li>▶ (내용) 화웨이, 파이티움 등 모두 자국산으로 구성된 총 18개의 승인 프로세서·OS 명단 공개</li> <li>▶ (규제 대상 목록) 외국産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Microsoft의 Windows 등 외국産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li> </ul>
미 국	
① 수출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통제목록)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통제목록(CCL) 추가 및 관련 中 기업 '거래 제한 목록'에 등재</li> <li>▶ (수출요건 강화) 관련 품목 중국 수출 시 라이선스 요건 추가 등</li> </ul>
② 동맹국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10~14nm 이하의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li> <li>▶ (네덜란드) 극자외선(EUV)·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수출 규제</li> </ul>
③ 추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제재 확대) 中 화웨이 7nm 반도체 개발 관련, 中 반도체 기업 추가 제재* * Qingdao Si'En, SwaySure, CXMT, SiCarrier, Pengjin, PST 등</li> <li>▶ (관세 인상) 중국産 레거시 반도체 대상 관세 인상</li> <li>▶ (기술 제한) 中 기업 美 기술 접근 제한 조치</li> </ul>

- 🕒 지난해 인텔의 최대 고객은 중국으로, 인텔의 작년 매출 540억 달러 중 27%, AMD의 매출 230억 달러 중 15%를 중국이 차지
- ▶ 동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으로써 인텔·AMD를 시작으로 중국 내 관련 美 기업에 타격을 미칠 전망이며, 중국의 해당 조치는 美·中 간 반도체 규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

출처: 파이낸셜타임스(24.03.24),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23호(24.03.21)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이차전지 아르헨, 하천 고갈 우려로 신규 리튬 채굴 허가 발급 중단

- 3.1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지방법원은 움브레 무에르토 염호\*에 대한 신규 리튬 채굴 허가 발급을 중단했으며, 이는 광산 개발이 지역 하천 고갈을 야기하여 현지 수자원 공급을 악화시킨 것이 원인
  - \* 아르헨티나의 리튬 매장량은 270만 톤(세계 점유율 10.4%)으로, 세계 3위 [자료원: USGS 2023]
- 금번 판결로 인해 국내 기업의 현지 개발 추가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中에 편중된 리튬 공급망 다변화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출처: 로이터통신('24.03.1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3월 3주)

◆ [비철금속] 中 페루 광산 생산 부진으로 동 가격 ↑, 인니 정제련 생산능력 확대로 니켈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2월	전년비(%)	3.2주	3.3주	전주비(%)
동	8,478	8,328	△1.8	8,703	8,851	1.7
니켈	21,474	16,199	△24.6	17,993	17,414	△3.2
아연	2,647	2,443	△7.7	2,524	2,479	△1.8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中 주요 제련소 정련동 감산협의 및 페루 광산 생산 실적 부진으로 전기동 가격 상승압력 발생
  - ▶ 다만 美 연준 FOMC 회의 결과 연내 금리인하 3회 전망유지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 및 재고량 증가에 따른 상기 상승압력 부분 상쇄
- (니켈) 인니 정제련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재고량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격 하방압력 발생
  - ▶ 또한 인니 니켈 조업권 발급이 3월 內 완료될 것으로 발표되면서 생산 차질 이슈 해소로 상기 하방압력 심화

◆ [철강] 中 철강산업 부진에 따른 철광석 가격 ↓, 中 계절성 소비둔화로 유연탄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2월	전년비(%)	3.2주	3.3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24.18	△28.4	130.85	125.38	△4.2
원료탄	295.71	325.12	9.9	284.38	254.30	△10.6
철광석	119.32	131.82	10.5	117.38	106.22	△9.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량)

- (철광석) 中 부동산 경기부진에 따른 원재료 수요둔화가 커지는 가운데 재고량 확대에 가격 하방압력 발생
- (유연탄) 中 계절성 소비둔화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했으나, 中 정부의 석탄 감산 및 안전점검 강화로 연료탄 생산 감소로 상기 하방압력 일부 상쇄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3월 3주)

◆ [희소금속] 中 공급 감소로 탄산리튬 가격↑, 영구자석 수요 감소에 따른 희토류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23년	'24.2월	전년비(%)	3.2주	3.3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130	△10.7	1,130	1,115	△1.3
탄산리튬	35,697	13,432	△62.4	15,811	15,999	1.2
수산화리튬	37,972	11,442	△69.9	14,560	14,889	2.3
코발트	17.82	16.95	△4.9	17.40	17.25	△0.9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66,750	△19.2	257,900	254,700	△1.2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5,900	△28.7	50,000	49,480	△1.0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페로망간) 공급업체는 既체결된 계약 이행에 집중, 수요업체는 3월 인도분 구매 완료하며 현물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전주 대비 가격 하락
- 🌀 (탄산리튬) 中 장시성 환경점검으로 현물 공급 감소로 공급업체 가격 상승하며 전주 대비 가격 상승
  - ▶ 수산화리튬은 원료 스포듀민 정광 가격 상승으로 전주대비 가격 상승
- 🌀 (코발트) 中 코발트 금속가는 中 주요 생산업체가 3.18일(현지시간) 안전을 이유로 생산 중단을 발표하며 전주 대비 가격 상승
  - ▶ 유럽 금속가는 최근 중국産 코발트의 생산량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영향으로, 中 금속가 상승에도 전주 가격 유지
- 🌀 (희토류) 산화 디스프로슘·산화 네오디뮴은 수요부진으로 가격 하락

◆ [에너지] OPEC 공급 감소 및 美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3년	'24년	전년비	3.1주	3.2주	전주비
두바이유	82.10	80.52	△1.58	82.52	83.21	0.69
브랜트유	82.17	81.08	△1.08	82.57	83.78	1.22
WTI	77.60	76.16	△1.44	78.59	79.50	0.91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국제유가) ▲OPEC 원유 수출 감소, ▲美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세, 美 금리 동결은 유가 상승 폭을 제한
  - ▶ 3.18일 이라크 석유부는 6월까지 원유 수출을 330만 b/d로 유지한다고 밝히며 2월 수출량 대비 13.4만 b/d 감소, 사우디의 지난 1월 원유 수출량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
  - ▶ 3.15일 기준 美 원유 재고는 4억 4,504만 배럴로 전주 대비 195만 배럴 감소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우리 기업이 주목할 만한 2024년 글로벌 기술 트렌드 전망



[작성] 한국무역협회 정책연구실 [참고] 우리 기업이 주목할 만한 2024년 글로벌 기술 트렌드 전망(2024.03.17)

ChatGPT에 의해 촉발된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모든 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AI 열풍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기술 트렌드의 핵심주제인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이슈로는 ① 쉐 산업에 걸친 AI 도입, ② 온디바이스(제품탑재형) AI 혁신, ③ AI 반도체 경쟁 심화가 꼽힌다. AI 이외에도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디지털헬스 분야의 기술 발전 또한 눈여겨볼 만한 트렌드이다. 모빌리티의 경우 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SDV : Software Defined Vehicle) 산업으로의 전환, ② 자율주행 트럭 상용화, ③ 수소 생태계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AAM)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경우 이제 단순한 ESG 차원의 규제 및 법규 준수를 넘어 인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의 전동화(electrification) 및 효율화, 그리고 기업의 수익화까지 이어지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헬스 분야는 AI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대한 개인별 맞춤화와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 관리 비용 절감 솔루션의 등장으로 자가치료의 확대와 의료형평성의 개선 가능성이 엿보인다.

####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모든 곳에 스며든 인공지능

- ▶ (AI 시장 전망) 2022년 ChatGPT 출시 이후 개발이 가속화된 세계 AI 시장규모는 2023년 2,079억 달러에서 매년 약 36.6% 증가하여 2030년 1.8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 (AI 적용 분야 확장) 모빌리티·로봇 헬스케어·스마트홈 등 쉐산업군에 생성형 AI가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비테크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전통 산업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
  -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은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차량 제어 시스템에 이식하고 있으며, 로봇에도 AI가 적용되어 삼성의 '볼리', 테슬라의 '옵티머스' 및 Figure AI, Agility Robotics 등의 기업에서 로봇을 개발 중임
- ▶ (AI 칩셋 경쟁 심화) 클라우드나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가 새롭게 각광 받으며 AI 칩셋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퀄컴, 인텔, 엔비디아와 같이 시스템 반도체(AP, CPU, GPU 등)를 생산하는 기업 모두 온디바이스 AI 칩셋 개발을 새로운 사업 모델로 선택하였고 반도체 제조업체가 아닌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도 자체 AI 반도체 생산 계획 발표

#### 🔍 모빌리티(Mobility)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전환

- ▶ 모빌리티의 주제가 소프트웨어·사물운송·수소생태계·도심항공 등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음
- ▶ (소프트웨어 전환) 소프트웨어를 장악해야 모빌리티 생태계를 선도한다는 판단 하에 인텔·퀄컴·아마존 등 테크 기업이 자동차 산업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기존 모빌리티 기업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인텔은 차량에서 AI PC를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 온칩(SoC) 개발 및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실리콘 모빌리티'를 인수하였고, 퀄컴 또한 '스냅드래곤 디지털 새시(Digital Chassis)'를 개발하여 생태계를 확장 중임

- ▶ **(자율주행 트럭 상용화)** 미국 내륙 운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2021년 기준 약 1,100조원에 달하는 화물차 물류 시장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트럭이 도입될 예정임
  - 트럭 제조 업체 코디악 로보틱스는 라이다 선도기업인 루미나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4단계 수준 물류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미국의 3대 트럭 제조사인 PACCAR와 협업하여 2024년 자율주행 트럭인 Aurora Horizon를 출시할 예정
- ▶ **(항공 모빌리티 발전)** 여객기와 달리 대규모 설비가 불필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대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미래 항공모빌리티(AAM)는 수 년 내에 상용화 예정

##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친환경을 넘어 전동화 및 대체에너지를 통한 수익 창출

- ▶ 환경·에너지·식량 관련 지속가능성 과제가 꾸준히 주목받으며 ESG 차원의 규제 및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수익 창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삼성전자는 2022년 '순환경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제품 모든 주기에서 자원 순환성을 높이도록 소재 재활용 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파나소닉은 탄소 배출 절감, 순환 경제, 자원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하는 '파나소닉 그린 임팩트(PGI)' 이니셔티브를 전사적 사업 모델로 하여 매년 6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
- ▶ **(탄소 배출 절감 솔루션)** 다수의 기업은 에너지 전동화 및 효율화, 대체에너지 개발, 자원 재활용 등의 기술을 통한 탄소 배출 절감 솔루션에 투자 집중
  - 두산그룹은 2024년의 핵심 키워드를 전동화와 지속가능성으로 정한 그룹 차원의 청사진 제시하였으며 보쉬 및 캐터필러 등의 기업도 에너지 효율적 사회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체 에너지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 중임
- ▶ **(스마트팜 및 푸드테크)** 세계 인구 증가 추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시장 지속적으로 성장
  - 글로벌 농기계 1위 기업인 존디어는 농업정보를 제공·분석하는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인 미드바르의 Airfarm은 세계 최초의 공기주입식 스마트팜 모듈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

## 🏠 디지털헬스(Digital Health) : 개인별 맞춤화 및 의료형평성 개선

- ▶ 최근 각광받는 디지털헬스 시장은 ① 피트니스 및 웰빙, ② 치료 및 관리, ③ 원격 진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각 분야의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글로벌 디지털헬스 매출액(약 1,703억 달러) 기준 피트니스 및 웰빙(832억 달러, 48.9%), 치료 및 관리(633억 달러, 37.15%), 원격 진료(23.8억 달러, 13.95%) 순으로 시장 규모가 큼
- ▶ **(개인별 맞춤화)** AI 기술 발달 및 스마트폰·웨어러블 기기 등의 보급에 따라 디지털헬스는 개인별 맞춤화되어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치료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임
  - Vivoo의 개인용 AI 소변검사 키트를 활용하면 이용자의 신진대사 수준을 평가하고 어플과 연동되어 영양 및 생활방식에 대한 맞춤형 진단을 내리주며, 국내 스타트업인 에버엑스의 비대면 근골격계 재활·치료 플랫폼 모라(MORA)는 AI 자세 추정 기술이 적용된 원격치료모니터링(RTM) 솔루션을 통해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근골격계 재활치료 시장을 혁신
- ▶ **(의료형평성 개선)** 건강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형평성을 개선하는 기술 및 도구들이 주목받고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 CEO가 CES 부스에 방문하며 화제가 된 한국기업 Mand.ro의 "Mark 7D" 손가락 의수는 기존 제품들과 달리 손가락이 전부가 아닌 부분적으로만 절단되어도 의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 또한 1/20 수준으로 혁신적으로 절감
  - 프랑스 기업 Withings가 의료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BeamO는 청진기, 산소 측정기, 심전도 체크기, 체온계가 결합된 휴대용 다목적 건강측정기기로 진료를 위한 주요 지표를 측정하고 환자의 누적데이터를 수집

## 글로벌 경제지표 (24.3.26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환율

	'22말	'23말	'24.2말	3/22	3/25	3/26	전일비	23말비
₩/US\$	1,264.50	1,288.00	1,331.50	1,338.40	1,342.10	1,339.50	△0.19%	4.00%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29.30	1,336.40	1,340.30	1,337.30	△0.22%	3.92%
₩/CNY	181.44	181.37	185.10	184.04	184.49	184.88	0.21%	1.94%
₩/¥100	945.56	912.25	888.91	883.84	887.40	885.27	△0.24%	△2.96%
Y/US\$	133.73	141.19	149.79	151.43	151.24	151.31	0.05%	7.17%
US\$/EUR	1.0617	1.1105	1.0835	1.0831	1.0817	1.0850	0.31%	△2.30%
CNY/US\$	6.9630	7.1092	7.1938	7.2265	7.2083	7.2167	0.12%	1.51%

\* 23년 평균 환율: (₩/US\$) 1305.9원, (₩/¥100) 931.6원, '24년 평균 환율('24.1.1~현재): (₩/US\$) 1328.5 (₩/¥100) 896.6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23.12.29	'24.3.25(전일)	'24.3.26	전일비	'23년최저비	'23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85.50	86.18	0.7	15.9	9.1	
					0.8%	22.6%	11.8%	
철광석	97.35(5.24일)	140.50	108.80	104.20	△4.6	6.9	△36.3	
					△4.2%	7.0%	△25.8%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8,745.00	8,764.00	19.0	951.5	288.0
						0.2%	12.2%	3.4%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267.50	2,275.50	8.0	207.0	△60.0
						0.4%	10.0%	△2.6%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6,865.00	16,565.00	△300.0	680.0	265.0
						△1.8%	4.3%	1.6%

### 반도체

	'21	'22	'23.12월	'24.1월	'24.2월	3/21	3/22	3/25	3월(~25)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86	1.95	1.93	1.92	1.92	1.94
(%, YoY)	29.9%	△23.0%	△14.8%	△3.6%	6.6%	15.1%	14.8%	15.5%	13.2%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38	6.42	6.41	6.41	6.41	6.41
(%, YoY)	14.7%	10.7%	△2.3%	△1.9%	△0.7%	0.2%	0.2%	0.2%	△0.1%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2.12.30	'23.12.29	3.8	3.15	3.22	전주비(3.15)	'23년말비
SCFI	1107.55	1759.57	1885.74	1772.92	1732.57	△2.3%	△1.5%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2.12.23	'23.12.22	'24.1.1	3.20	3.21	3.22	3.25	전일비(3.22)	'23년말비
BDI	1515	2094	1308	2,350	2,374	2,419	2,392	△1.1%	14.2%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mailto: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mailto: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제품생산기업연합회



한국베터리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기술자협회



전력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